광주 유명 영어학원 곳곳 무자격 외국인 강사 많다

경찰, 고졸자 등 17명 적발…학원장·브로커 20명 입건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유명 어학원 영어 등 외국어 회화강사로 취업한 외국인들과 이들을 고용한 학원대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3일 관광·유학·종교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광주시내 유명어학원에 회화강사로 불법 알선한 이모(46)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외국어 회화지도자격(E-2 비자) 없이 이씨를 통해 어학원 강사로 취업한 미국인 W씨 등 외국인 17명과 이들을 고용한 광주 A 어학원대표 박모(40)씨 등 학원장 19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학비자로 입국한 W씨를 광주 A어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광주시내 외국어학원 13곳에 외국인 12명을 알선해 주고, 이들이 받은 강의료(시간당 2만5천~3만원)의 약 20%(시간당 5천~7천원)를 소개료 명목으로 가로채 지금까지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외국어학원 대표 박씨 등은 월 부담금이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원어민 강사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브로커 이씨로부터 관광·종교·유학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소개받아 외국어 회화강사 등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외국인 회화강사는 ▲미국인 4명 ▲캐나다인 4명 ▲케냐인 3명 ▲남아공인 3명 ▲중국인 1명 ▲벨로루시인 1명 ▲호주인 1명 등이고, 이들을 고용한 학원은 영어학원 18곳, 중국어학원 1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들은 자격도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뒤 주 1회 실시되는 원어민 강사 강의 명목으로 월 5만 원 안팎을 학부모들에게 더 요구했다"며 "이 같은 불법고용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조건 원어민 강사에게…" 막연한 기대

■ 무자격 외국인 강사 왜 판치나

'무자격' 외국인 학원 강사가 판치는 것은 조기 영어교육 열풍이 가장 큰 이유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이왕이면 원어민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막연히 원어민 강사가 국내 강사보다 잘 가르친다고 여기는 것이다.

여기에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싼값에 고용, 교육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학원 업주들의 잘못된 생각도 한 몫하고 있다.

회화지도 자격(E-2)이 있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 체류비·왕복 항공료·주거비 등 적어도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일부 학원 업주들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무자격' 외국인들을 고용, 학생들을 속여왔다.

경찰에 적발된 '무자격' 외국인 강사 17명은 대부분 유학(D-2)·관광(D-3)비자 등으로 입국했다. 이 중 고졸 출신도 4명이나 됐다. 1명은 광주 모 대학 재학생이었다. 나머지 12명은 대졸의 학력을 지녔고 이 중 5명은 광주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이들은 커리큘럼(교육과정·curriculum)도 없이 학원에서 주는 교재로 대화 또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해왔으며, 매주 단 하루 4~5시간 강의를 하고 월 60여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학원 업주들은 특히 단지 원어민 강사가 강의를 한다며 매월 다른 학원들보다 5만원 비싼 18만~2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학원비 인상을 부추겼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결과 광주시내에는 287개의 외국어학원이 운영중이며, 광주시교육청에 신고된 회화지도 자격(E-2)이 있는 외국인 강사는 모두 262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감사원, 나주 면세유 부정유통 감사

나주지역에서 농어업용 면세유의 상당 부분이 부정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자 감사원이 이 지역 면세유 관리기관에 대한 특별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23일 "이날부터 2주간 농협 나주시본부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유통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국세청 직원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감사인력을 투입, 면세유가 광범위하게 부정유통된 과정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다.

앞서 지난 5월 목포해경이 농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린 나주 ○주유소 배모(36)씨 등 업자 2명과 이들에게 면세유를 상습적으로 팔아온 반모(43·나주시)씨 등 어민 3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실태가 드러나 종합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100% 면제한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지난 86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

동복호에 살조제 살포 광주시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23일 오후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동복호에서 유해 조류(藻類)를 죽이는 살조제인 '황산동'을 살포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지난 20일 강수량 부족에 따른 저수율 저하로 조류가 급격히 증가한 동복호 유역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진 '보건소 직원 사칭' 노인 상대 사기 잇따라

강진군에서 보건소 직원이라고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챙기는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강진 경찰과 강진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강진군 도암면 김모(여·76)씨의 집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와 "보건소에서 나왔는데, 잠시 후 여직원이 나와서 주사를 놓아 줄 것이니 돈을 달라"고 말해 15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앞서 지난 2일 강진군 성전면 박모(여·83)씨의 집에도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방문해 "보건소 직원인데, 마을 이장에게 급히 줄 돈이 필요하니 30만원만 빌려 주라"고 해 9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강진보건소 관계자는 "최근까지 모두 3차례 '보건소 직원 사칭'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유료 예방접종 후 소액의 대금을 받는 것 외에 집을 방문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기 수법과 목격자들의 진술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가짜 기부금 영수증' 사찰 주지 3명 집유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23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광산구 D사찰 주지 박모(59)씨와 B사찰 주지 남모(49)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주헌 판사도 이날 수 십억원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동구 계림동 S사찰 주지 전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아자동차(주)와 금호타이어(주), 한국차량공업(주), 기아서비스센터(주) 등 4개 회사 근로자 1천565명에게 62억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9억여원의 근로소득세를 탈루토록 도와준 대가로 사찰당 연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일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납금 퇴직금서 제외 노사 합의는 무효"

대법원 판결

택시 기사가 택시요금 수입금 가운데 회사에 내는 일정 금액인 사납금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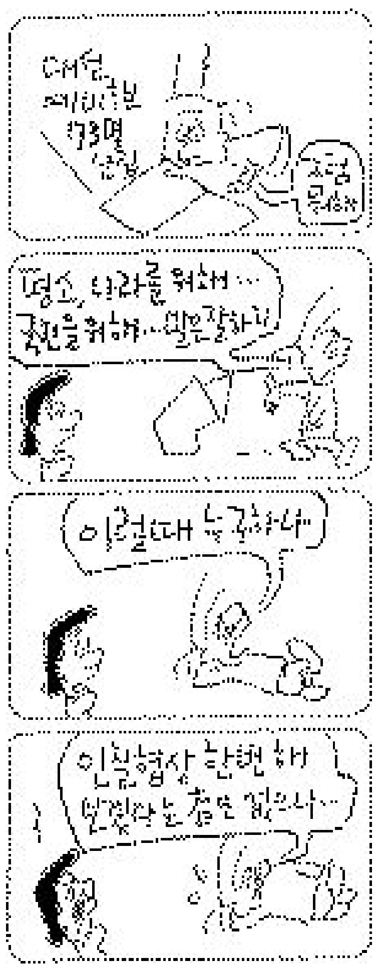
대법원 3부는 택시 기사 최모씨 등 9명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400만여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노조가 사납금 초과 수입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임금협정을 했지만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 기준에 미달해 노사간 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모 운수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최모씨 등 9명은 노사 합의를 기준으로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퇴직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협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나원참 〈7269〉 김종두



동요 음표 하나 바꿔도 저작권 침해

쌍나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명 '올챙이송' 작곡가 윤모씨가 자신의 다른 동요를 비디오와 CD로 제작하면서 창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한 곡의 음표 하나를 틀리게 만든 H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음표 하나가 바뀐 동요 '손발체조'는 가사가 있는 부분이 12마디밖에 되지 않고, 음 하나만 바뀐다 해도 곡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

○…H회사는 일명 '올챙이송'을 만든 윤씨와 계약을 맺고 동요 비디오테이프를 만들면서 윤씨가 창작자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원곡에는 '미'로 돼있는 8분음표 하나를 실수로 '라'로 바꿔 소송을 당했다고. /연합뉴스